

보수 2野 “靑, 조국 해임 안하면 국회 보이콧”

조명래 장관 임명 강행 반발
한국당·바른미래 기자회견
민주 “야당 명분 없는 몽니”
정국 급랭 ... 예산 논의 등 진통



김수현·임종석 운영위 출석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13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예산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13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 등을 이유로 여권을 향한 반발 수위를 높이며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지난 5일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출범으로 모처럼 협치에 대해 기대감이 높아진 지 일주일 만에 분위기가 급변하면서 내년도 예산안과 주요 법안 처리에도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해임과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수용 없이는 향후 국회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날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여야정 상설협의체 실무회동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대야 공세를 더욱 강화하고 나선 모양새다.

두 원내대표는 회견에서 “소통과 협치가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에 대해 대통령과 야당은 들러막기 인사,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 국정조사 거부로 답했다”며 “이런 상태에서는 협치 노력이 진전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과 여당의 분명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 인사검증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의 해임, 고용세습 채용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 수용을 촉구한다”며 “이런 야당의 최소한 요구마저 거부될 경우 정상적인 국회 일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9일 오전 3당 원내대표가 여야정 협의체의 후속 조치로 정책위의장과 수석원내대표 간 실무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는데 그날 오후에 인사가 강행됐다”며 “야당은 협조하려고 마음을 모으는 상황에서 청와대의 일방적인 인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두 당이 ‘몽니’를 부리는 것이라고 맞섰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합의문에 링크가 마르기도 전에 벌어진 야당의 무책임한 태도가 안타깝다”며 “야당의 명분 없는 몽니로 여야 합력이 무산된 과거 사례가 되풀이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재정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야당은 법치선 여야정 협의체를 정상 가동에 예정

된 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만이 국가와 국민에 대한 국회의 책무임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전날 예고 없이 실무회동에 불참하고 돌연 공세를 강화한 것은 예산정국에서 목소리를 키우기 위한 의도로 보고 있다. 따라서 헌법상 예산안 처리 시한(12월 2일)을 앞두고 여야 간 신경전은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또한 전날까지 정부 부처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질의를 마무리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본격적인 감액·증액 심사를 앞두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예결위는 오는 15일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본격화

민주, 고위공직자 범죄 전담 수사처 설치법 등 발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의 핵심으로 꼽히는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과 함께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전담할 수사처 설치법안을 나란히 발의, 국회에서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13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지난 6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의 내용을 반영한 ‘검찰청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전날 대표 발의했다.

아울러 역시 사법개혁 소속인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사과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앞서 다른 여야 의원들도 발의했던 이른바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의 후속 성격이지만 세부 내용에서 차이를 보인다.

개정안은 검경수사권 조정안처럼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송치 후 수사권·사법경찰관 수사에 대한 보완 수사 등 사법통제 권한을 갖도록 했다. 또 검사의 범죄 수사에 관한 지휘·감독 대상에서 일반 사법경찰을 제외하고, 검사가 수사를

일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기관 명칭에 변화를 줬고, 검사와 수사관 규모를 각각 25인 이내, 30인 이내로 적시했다. 앞서 박범계(민주당)·이용주(민주평화당) 의원안과 오신환(바른미래당) 의원의 법안에는 정원이 규정 없었다. 전직 검사 출신에 관한 지휘·감독 대상에서 3년 이내 가장 까다롭게 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

한국당 투톱 선거 ‘전운’

원내대표 경선·전대 임박... 친박 vs 비박 세대결 조짐

자유한국당 투톱인 당 대표와 원내대표 선거가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계파별 세대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군으로 거론된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선거전을 앞두고 세 걸잡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원내대표 임기가 12월 11일에서 차기 경선이 한 달도 안 남은 데다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역시 내년 2월말께 열릴 계획이어서 향후 100일간 당 권력 지도가 새롭게 그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일부 원외 인사들이 주축이 된 ‘자유한국당재건비상행동’이 국회 인근 한 호텔에서 모임을 열었다. 모임에는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심재철·정우택·조경태·김진태 의원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등이 초청을 받아 참석했다. 참석자가 주로 친박(친박근혜)계를 포함한 잔류파가 중심이 된 데다, 이 모임이 6·13 지방선거 참패 직후 김문수 의원의 정계 은퇴와 김성태 원내대표의 사퇴를 강하게 촉구했다는 점에서 탈당파와 대척점에서 세대결을 펼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

우선 비박(비박근혜)계 최장수인 통했던 김무성 의원과 정진석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토론, 미래’ 모임의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국면에서 탈당했거나 탄핵을 지지했던 인물을 중심으로 주호영·김재경·강석호·권성동·김영우·김학용 의원 등 15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차기 당 대표나 원내대표 후보

이들은 차기 당 대표나 원내대표 후보

여야, 올해도 생색내기 예산확보 되풀이

국토·법사위 등 5개 상임위 증액 규모 4조원 넘어서

국회 상임위별 예산 심사가 순차적으로 완료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여야의 생색내기식 예산확보 경쟁이 되풀이되고 있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부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5개 상임위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쳤다.

5506억 원을, 기금 운용계약안도 4835억 원을 올려 총 증액 규모는 3조 원을 넘어섰다. 또 정부위의 예산안 증액 규모는 4088억 원, 과방위는 4018억 원으로 각각 4000억 원대를 증액했다.

원내대표는 회견에서 “소통과 협치가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에 대해 대통령과 야당은 들러막기 인사,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 국정조사 거부로 답했다”며 “이런 상태에서는 협치 노력이 진전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과 여당의 분명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 인사검증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의 해임, 고용세습 채용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 수용을 촉구한다”며 “이런 야당의 최소한 요구마저 거부될 경우 정상적인 국회 일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세출예산안을 기존 정부 예산안 대비 2조

법사위는 228억 원을 증액했다. 법제처 예산의 경우 야당 의원들이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예산안 심사 자체를 거부, 결국 상임위 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회로 넘어갔다. 외통위는 여야 간 견해차가 큰 남북협력 기금(1조9777억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한 가운데 총 증액 규모는 413억 원에 달했다. 이들 5개 상임위의 증액 규모를 모두 합하면 4조원에 육박한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매년 매머드급 증액을 해오던 일부 상임위 등을 고려하면 올해 증액 규모가 10조 원에 이르지 않는다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는 16

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9조원이 넘는 예산 증액 요구안을 예결위로 넘긴 바 있다.

이같은 상임위 차원의 예산 증액은 구속력이 없고 예결위에서 받아들여 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만큼 결국 올해도 선심성 예산 부풀리기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예산 칼날”을 휘두르는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는 상임위에서 넘어온 의견 가운데 감액 요구만 반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상임위에서의 예산 증액은 예결위에서 대부분 삭감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며 “진짜 예산 전장은 예결소위 심사에서 결판난다고 보면 된다”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박람회장 사후활용’ 국비 지원 쉬워진다

여수박람회법 개정안 통과... “국가·지자체도 운영 주체”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 활용 활성화 방안을 담은 여수박람회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했다.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여수시는 박람회장에 청소년해양교육원과 국립해양기상과학관을 유치했지만, 현행법에는 국가나 지자체가 사업 주체로 나설 수 없어 국비 지원을 받는 데 제약이 많았다. 개정안이 이대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사후활용 주체로 나설 수 있어 박람회장 시설 사후 활용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박지경 기자 jkpark@

현재 박람회장은 박람회장 사후활용 주체로 공공기관과 지방기업·민간투자자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국

으로 거론된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선거전을 앞두고 세 걸잡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펜션·가든 부지 매매

▶고창군 고수면 문수로 171
▶대지 및 전답 4,000㎡(전평 정남향)
▶2차선 도로, 계곡 200m 접해 있음
▶부속건물 / 한옥 / 수영장 / 방갈로
▶장성 편백숲 5분거리
▶문수사 단풍숲 2분거리

010-3768-0615
010-3799-3830

주인 직매

풍수 사주 수강생 수시 모집 및 상담

풍수와 사주(명리)를 한번에~
구슬이 세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개강 (초급 및 중급)

- 일시: 2018. 10. 30(화) 오후 7시
- 장소: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산수오거리 → 무등산방향입구 우측2층)
- 수강료: 풍수 + 사주 15만원(매월)

공개강좌

- 일시: 2018. 10. 23(화) 오후 7시
- 장소: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 대상: 누구나 (선착순 0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천기비법 대 공개
- 기감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 및 수목장 수백파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 010-2246-1508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완도 약산면 바다인접 주택 대지 607㎡ 주택 70㎡ 9200만원
- 곡성 삼기면 청계리 681㎡ 광주서 30분내 4600만원
- 보성 문덕면 대원사입구 전원주택지 1800㎡, 1105㎡ 평당 35만원

주택·원룸·아파트

- 남구 월산동 월산아파트 2층 80㎡ 8700만원
- 월산동 농성초 건너편 소방도집 대지 149㎡ 2층주택 115㎡ 1억3천
- 서구 쌍촌동 2층 주택 땅 105㎡ 새 주택 118㎡ 운전차수지부근 2억7천

투자·매도·교환

- 무안 심향음 왕산리 4861㎡ 식당·창고·주택단지 적합 5억9천
- 장성 삼계면 주산리 상업지 432㎡ 장기투자에 적합 5200만원
- 장성 삼계면 상업지 601㎡ 투자에 양호 은행 1억 매도 3천만원
- 무안 청계 목포대학부근 주거지 땅 4413㎡ 은행 2억4천 매도 7천
- 소태동 대지 261㎡ 주택 78㎡ 조용한 생활 적합 1억9천
- 광산구 대산동 잡종지 등 1554㎡ 창고 등 다용도적합 3억7천
- 동구 용산동 대지 등 2449㎡ 다세대·빌라·시할 등 적합 10억 천
- 충장로5가 버스도집 상업지 494㎡ 생활주택 사육적합 7억7천
- 유동 소방도 상업지 331㎡ 상가·원룸·빌라 적합 4억7천

상가건물

- 동구 서석동 대지 404㎡ 5층건물 919㎡ 9천에 월300수익 10억2천
- 양산동 대지 231㎡ 4층 안집과 원룸·투룸 497㎡ 교환가능 6억7천
- 월산4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 농성초부근 2차선접 상가주택 땅 172㎡ 건평 279㎡ 4억5천
- 양림동 땅 274㎡ 건물 751㎡ 요양병원할 건물과 교환가 16억

특급물건

- 팬션 순천만 대대동 땅 332㎡ 룠 8개와 관리실 은행 3억 영업질월 3억천
- 아파트 부지 담양 고서면 63530㎡ 평당 70(13억)
- 완도를 새모텔 땅 959㎡ 45실 2393㎡ 은행 17억 감정가이하 23억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오피스텔 급매

- ✓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 38평, 사무실 전용
- ✓ 20층중 3층, 하천방향, 전체 우수리
- ✓ 대형주차장 완비, 무료 주차 3대
- ✓ 관리비 저렴, 즉시 입주가능
- ✓ 시세 - 1억 1000만원
- ✓ 급매 - 7200만원
- ✓ 현재 보500만원 월60만원 임대중

문의. 010-3605-5000